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2016.4.17.(다해) 제1994호



성유스티노신학교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나는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요한 10,28)

오늘은 성소 주일입니다. 자기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은 성직자, 수도자가 많이 나오기를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사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성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주님의 뒤를 따라 착한 목자의 길을 걸으며 맡겨진 양떼를 성실히 주님께로 이끌어 줄 성소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소 주일을 맞아 더 많은 젊은이들이 사제, 수도 성소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독서 사도 13,14.43-52 **제2독서** 묵시 7,9.14-17 **복음** 요한 10,27-30.

입당송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알렐루야.

화답송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또는 ◎ 알렐루야.)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

이성호 세례자 요한 신부 | 교구 성소담당

최근까지 해마다 15명 내외를 유지하던 우리교구 신학교 입학생 수가 올해는 급감하여 지난 3월에 5명만 입학했습니다. 더 넓게 보면 2000년도에 174명이던 교구 신학생 전체수가 2016년도에 119명이 되었으니 32%가 감소한 것입니다. 지난 5년간 교구 성소육성과 계발을 담당하고 있는 사제로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성소담당을 맡아 일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동안 ‘우리교구만 줄었나?’라는 생각에 타교구 자료도 찾아 모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타교구 신학생 수도 많이 감소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구민 수가 많은 큰 교구일수록 더욱 크게 드러났습니다.

혹자는 이런 성소자 감소의 원인으로 낮아져가는 출생률을 꼽았습니다. 1971년도 출생아 수가 1,020,000명이었는데(이 때가 우리나라 출생아 수의 정점이었습니니다.) 2014년도에는 435,300명이 되어 출생아수가 58%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인구가 줄었으니 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도 당연히 감소할 것이냐는 분석입니다. 우리교구 성소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본인도 그렇게 알고 위안을 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소자 수 증감의 원인을 통계치에만 맡겨두고, 출생아 수에 비례하여 성소자 수가 늘거나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소자를 결정하는 것은 하느님이십니다. 즉 수확할 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뽑아 보내는 이는 주인님, 곧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주인께서

출생아 수에 비례해 알아서 일꾼들을 뽑아 보내실 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꾼들의 선발과 파견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요청을 당부하셨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마태 9,37-38) 성소자 감소라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서서 당부하신 이 기도를 지난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인님께 바쳤던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소 주일을 맞아 성소자 증가를 위해 기도와 함께 해야 할 우리의 노력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사제성소, 수도성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환경에 학생들이 자주 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정부교구에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비 신학생들이 최초로 성소에 관심을 가졌던 시기로 응답자의 약 70%가 초등학교 시기를 꼽았고, 사제성소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로 45%의 응답자가 본당 복사단 참여라고 답했습니다.

지난겨울 성소피정에는 그 전보다 30여명이 더 많은 92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성소피정에 30명이나 더 왔다는 것은 엄청난 수적 증가입니다. 그리고 올해 등록된 예비신학생 수도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신학교 입학생 수가 올해 5명밖에 안 된다는 소식을 접한 본당 신부님, 수녀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사제나 수도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초대 교회 시절, 한 분의 사제라도 모시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힘썼던 신자들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53차 성소 주일 담화문(요약)

성소의 어머니인 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모든 세례 받은 이가 자비의 특별 희년을 지내며 교회에 속해 있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성소가 싹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토양이 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소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눈길에서 시작됩니다. 회개와 성소는 선교하는 제자들의 삶에 늘 함께합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공동체의 중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소의 여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힘을 얻은 성소는 무관심과 개인주의에 맞서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을 하느님 계획에 바치고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성소는 교회 안에서 생겨납니다. 젊은이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자신의 교회적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깨달아 다양한 은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좀 더 객관적인 식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공동체는 성소가 생겨나는 가정과 가족이 됩니다.

성소는 교회 안에서 성장합니다. 다양한 성소들의 지원자들은 양성 과정에서 교회 공동체에 관한 지식을 키워, 누구나 처음에 지니게 되는 제한된 시각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사도적 경험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양성 과정에 있는 이들에게 교회 공동체는 늘 근본적인 양성 환경이 됩니다.

성소는 교회에서 힘을 얻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소 여정은 봉사 의지, 인내, 평생 교육을 통하여 지속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선교사들의 동반자와 힘이 되어 줍니다. 성소 사목은 사제 직무의 핵심에 속합니다. 사제들은 성소를 찾고 있는 이들과 하느님과 공동체를 위하여 이미 자신의 삶을 봉헌한 이들을 도와줍니다.

교회의 모성은 성소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하느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 활동과 동행으로 드러납니다. 성소 여정에 있는 모든 이가 교회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지니도록 주님께 간청합니다. 또한 목자들과 모든 믿는 이가 친교와 식별과 영적 부성과 모성을 강화하도록 성령께 간청합니다.

2015년 11월 29일 대림 제1주일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신부님, 오래 살고 싶으세요?

박성대 요한 신부 | 2대리구 교구장대리

오래 전에 건강 종합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은 항상 긴장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년 종합 건강 검진을 받았지만 별탈이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안도하면서 어떤 신자에게 사랑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내 얘기를 들은 신자의 뜻밖의 질문에 무척 당황하고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다. 그 질문은 바로 “신부님, 오래 살고 싶으세요?”였다. 이 질문을 받고 필자는 충격을 받고 부끄러웠다. 세속 사람도 아니고 사제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고작 육체적 건강이나 자랑했던 말인가? 영적인 건강도 아니고 육체적 건강이라니!

최근에 『혼이 담긴 시선으로』(고도원, 꿈꾸는 책방)라는 책을 읽었다. 그 책에 ‘행복하게 나이드는 비결’이라는 제목 안에 이런 글이 있다.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면서 나이를 먹느냐 하는 것이다. 100세까지 사느냐, 150세까지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다.”(같은 책 222면) 그리고 “노년을 얘기할 때 대개는 황혼의 빛을 떠올리지만, 나는 노년을 금빛으로 비유하고 싶었다. 황혼은 지는 빛이지만 금빛은 결코 퇴색하지 않는다. ... 노년 세대가 지난 시절에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금빛 면류관일 수 있다. 전쟁의 시대, 궁핍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살면서 겪은 경험과 통찰들이 사회 활동으로 봉사활동으로 젊은 세대에게 전수될 때 그 금빛은 길이길이 영예롭게 빛날 수 있다.”(같은 책 223면)

필자는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한다.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한 후에 국군 도수 체조를 하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0번, 그리고 팔 굽혀 펴기를 30번 한다. 다시 말해서 나의 육체적 건강을 위하여 거의 한 시간을 투자한다. 사제가 겨우 자신의 육체의 건강만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투자하는 것이 잘 하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지만도 않다. 매일 한 시간씩 성체 앞에서 성경 말씀과 함께 기도 시간을 가진다.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다. 육체적인 건강을 위하여 투자하는 만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매일 한 시간씩을 투자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마태 6,31-34)

우리는 신앙인들이다.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은 더 중요하다. 필자는 나이가 들면서 ‘Well dying’에 자꾸 신경이 쓰인다. ‘Well living’이 곧 ‘Well dying’이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열심히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필문**

콘클라베(conclave)



교황은 일반적인 선거 방식과는 달리 콘클라베(conclave)라는 독특한 제도를 통해 선출됩니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단 회의를 콘클라베라고 하는데 라틴어의 쿼 클라비(cum clavi)에서 유래하는 말로 Con(With...와 함께)과 Clave(Key 열쇠)의 합성어로 ‘자물쇠가 채워진 방’이란 뜻으로 원래는 교황을 뽑는 선거 장소를 말합니다.

초대 교회 때의 교황선출은 로마에 거주하는 성직자와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간섭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1059년 이후 부터는 추기경단에서 교황의 선출 임무를 맡게 되는 교황선거법이 마련되었고 1179년 제3차 라테란 공의회에서는 3분의 2의 다수결 선출 방식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268년에 클레멘스 4세 교황의 선종으로 이탈리아의 비테르보에서 교황 선출 회의가 열렸는데 탁상공론만 계속된 채 3년 가까이 선거를 지연시키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비테르보 시민들은 선거자들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급기야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감금하고 최소한의 빵과 물만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콘클라베의 기원이 되었고 1271년 마침내 새 교황으로 선출된 그레고리오 10세 교황께서는 그 방법이 훌륭했음을 인

정하고, 1274년 제2차 리옹 공의회에서 그것을 제도화했습니다.

오늘날 콘클라베는 바티칸 궁 내 시스틴성당에서 행해지는데 예전처럼 추기경들이 성당에서 갇혀 지내는 관례는 요한바오로 2세 교황의 사도헌장 『주님의 양떼』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고 대신 바티칸에 있는 숙소인 성 마르타의 집에 머물면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콘클라베는 교황께서 사임하시거나 선종하신 후 15~20일 안에 열리게 되어 있으며 교황을 선출할 추기경단이 콘클라베에 임하게 되면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일체 외부와 단절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완전히 비밀로 하며 기록은 교황청 고문서실에 보관하게 됩니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후보는 따로 선발하지 않고 선거인 각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적게 됩니다. 매번 투표 후에 교황이 선출되지 않으면 투표용지를 태워 검은 연기를 내 보내고 새 교황이 정해지면 흰 연기와 함께 성 베드로 대성전의 타종 소리로 새로운 교황께서 선출되었음을 기다리는 신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역사상 가장 짧았던 콘클라베는 1503년 10월 31일 율리오 2세 교황 선출 때로 콘클라베가 열린지 몇 시간 만에 선출되어 최단기록을 세웠으며 그레고리오 10세 교황은 1268년부터 1270년까지 2년 9개월에 걸쳐 콘클라베가 열려 가장 길었던 교황선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세기 들어 소집된 콘클라베는 최소 이틀에서 최대 닷새 동안 열렸으며 현재 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틀간 5차례 투표 끝에 새 교황으로 탄생되었습니다. **필문**

교구장 동정

■ 대신성당 견진 및 교육관 축복식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는 4월 3일(일) 오전 10시 30분 대신성당에서 견진성사를 거행하고, 미사 후 신축 교육관을 축복하였다.

■ 인동성당 견진성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는 4월 10일(일) 오전 10시 30분 인동성당에서 84명의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거행하였다.

대구주보 2000호 기념 특별 프로그램

■ 신앙생활체험 수기 공모전

기간 : 2016년 4월 11일(월)~5월 10일(화) 마감일 도착분

주제 : • 대구주보와 함께 한 신앙생활의 에피소드 • '자비의 화년'을 맞아 용서와 사랑에 대하여
•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를 사는 우리의 모습 (3개의 주제 중 택 1)

분야 : 수필 / 시 (1인 1작품만 출품 가능) 형식 : A4 용지 11 포인트 1장 / 200자 원고지 7~8매

접수 : 교구 문화홍보실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jubo@dgca.or.kr

■ 대구주보 2000호 축하톡톡

기간 : 2016년 4월 18일(월)~5월 15일(일)

내용 : 축하와 응원의 한 줄 메시지(30자 이하)를 보내 주세요

방법 : 대구주보 홈페이지 (<http://www.daegujobo.or.kr>) : 팝업 창 및 우측 하단 배너 클릭

교구앱 : 메인 페이지 하단 이벤트 버튼 클릭 - 축하톡톡 배너 클릭

(아이폰의 경우 업데이트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구 페이스북 : 축하톡톡 공지 메시지 링크 클릭

■ 대구주보 최다 보유자를 찾습니다

기간 : 2016년 5월 20일(금)

내용 : 1979년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대구주보를 모으고 소장하고 계신 분을 찾습니다

문의 :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9

※ 자세한 사항은 대구주보 홈페이지(<http://www.daegujobo.or.kr>) 공지사항 참고

대구주보2000

시각의 차이



박성규 엘리지도

미사 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4월 18일(월) 10:30 베퍼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4월 20일(수) 10:00 평화성당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4월 18일(월) 11:00 계산성당	구미지역 학교복음화미사	4월 20일(수) 19:30 신평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4월 18일(월) 11:00 죽도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4월 21일(목) 10:00 평화성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4월 18일(월) 11:00 순례자성당	-	-

성소 | 피정

작은예수회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4.22(금)~24(일)

장소: 가평 작은예수회마을

내용: 모든 질병과 어둠을 버리기

출발: 대구시민회관 11:40

문의: 박데레사, (010)2646-0583

젊은이 성경강림 전례 피정

기간: 5.14(토)~15(일)

장소: 툇정포교베네딕도 대구수녀원

문의: (010)8519-3431

(010)9347-3431

기쁨이 샘솟는 소보동지 피정

일시: 사전예약(위탁피정)

대상: 청소, 청년, 가족, 재단체

주최: 군위 소보동지

신청: (010)2649-2045

제주도 성이시들 자연 피정

올레, 한라산, 미사, 기도, 강의

기간: 4.25~27 / 5.2~4 / 5.6~9

5.11~14 / 5.17~20 / 5.22~24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성이시들피정집, (064)796-9181

교육 | 모집 | 기타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청년MSC 모집

예수마음을 배우며, 살고 싶은 젊은이

대상: 40세 이하 남녀 청년들(미혼, 기혼)

다음카페: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

문의: (010)9330-3104 / (010)4203-3217

지역주민을 위한 관절염 순환교육(8차)

일시: 4.28(목) 14:00~15: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관 3층 데레사홀 / 문의: 650-4910

주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바로 알기

강사: 정형외과 최원기 교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기간: 5.25(수)~26(목) 9:00~17:00

장소: 가톨릭대학교병원 3층 데레사홀

마감: 5.18(수) / 3만 원(중식, 교재)

대구은행 508-12-426680-6 호스피스

문의: 650-4557 / 3560

바틀로교육센터 초·중고 여름 신앙캠프

기간: 중·고등부 7.25(월)~30(토) 1박 2일,

3차 / 초등부 8.1(월)~6(토) 1박 2일, 3차

신청: 본당별 선착순 30~40명

회비: 5만 5천 원(냉방비 별도)

문의: 783-9817 / (010)9868-9817

관덕정 국내 성지순례

일시: 5.15(일), 남양성모성지

신청: 4.16(토)부터 선착순 / 3만 원

문의: 관덕정, 254-0151

자비의 특별히전 크루즈 성지순례

1차: 5.27(금)~6.6(월) 10박 11일

2차: 7.15(금)~25(월) 10박 11일

장소: 스페인, 영국령, 프랑스, 이탈리아

경비: 내측 498만 원, 발코니 528만 원

문의: 가톨릭신문사, (02)2281-9070

48차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초·중·고: 7.21(목)~8.13(토)

세계 학생들과 연수·런던 관광

대·일·반: 6.26(일)~8.7(일)

세계 학생들과 함께 연수·홈스테이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0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Rex Diamond
더렉스 대구갤러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 · 핸드메이드 디자인 가능)
대표 임 미 순(마리아)

♥ 교통족 동아백화점과 시청 사이 ♥
(동아주차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팍앤신업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팍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팔리)
http://www.ksnose.com

2484 익스프레스

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반역기(비오로) 010-3514-3855

JS 전기조명

LED 전문시공 인테리어 설계
밝고 긴 수명, 전기료 절감
대표 안 준 영(대견안드레아)
안 승 재(베드로)

대구시 북구 산격동 1666 전기조명관 120호
☎ 053)604-4589 | 010-3693-8816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훈(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주)한투어
한투어 생지순례전문

6월 3일 산티아고 도보순례(출발확정) 및
성모발현지(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발칸 성지순례 모객 중

☎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말대나
http://www.hantourcatholic.com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를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골동품 · 민속품

고가 매입, 문의 환영

문승갤러리 김 대 운 (요셉)

위치 : 건들바위 네거리(무료강정)

☎ 053)474-3050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故)이종흥(그리산도) 몬시뇰
선종 1주기 미사
일시: 4.19(화) 10:00
장소: 성직자 묘지

행사 | 모임

수성성당 가브리엘 성경대학 기금마련 대구가톨릭 미술가회 소품전

기간: 4.23(토)~24(일)

장소: 수성성당

성화 성물 중심소품 200여 점 출품
문의: 수성성당, 742-0224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4.18(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교육 | 모집

시니어 평생대학 봉사자 성경 교육

일시: 5.9(월) 14:0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강사: 송재준(마르코) 신부

마감: 5.1(일) 마감임수

문의: 교구 노인사목담당, 250-3077

31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개설

기간: 4.21~5.26(매주 목) 9:30~14:30

5.5(목)은 어린이날로 인한 휴강

장소: 구미 옥계성당

교육비: 10만 원

대상: 가족을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

문의: 교구 가정담당, (010)6499-3114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사진 무료 강좌(가톨릭사진가회 주최)

기간: 5~6월 매주(금) 19:00

장소: 교구청 가동 3층

신청: (010)4043-7307

가톨릭마음인회 성자순례

일시: 4.26(화) 7:30 출발

장소: 우곡성지(경북 봉화군)

버스운행: 대봉성당

(3호선 건들바위역)

문의: (010)9518-7090

가톨릭근로자회관 5월 영아성경공부 모집

개강: 5.2(월) / 월 3만 원

창세기: 월, 수 10:10, 15:00, 17:00

낮: 테살로니카·여호수아(화, 금 10:10)

저녁: 여호수아·에페소(화, 목 19:10)

집회서: 목 10:10 / (010)6506-3303

대구평화방송 부모 교육 특강

일시: 4.15(매주 금)부터 10:30

장소: 계산성당 제1교리실

주제: 청소년 교육, 행복한 미래를 꿈꾸다

강사: 현장전문가, 임석환·이영동 신부

문의: 대구평화방송, 251-2650 / 2654

2016 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접수기간: 5.2(월)~13(금) 예정

문의: 850-3583(일반)

850-3505(교육) / 660-5512~3(특수)

채용 | 안내

각산성당 사무장(여) 채용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자격: PC, 엑셀업무 가능자

문의: 2대리구청, 743-7010

교구 법원 공시(253-9550)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안창옥, 이주연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http://cord.fatima.or.kr>

문의: 959-8883 / 940-7126

2016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판매가: 5천 원 / 609쪽

구입: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교구에서 출자하고 운영 중인 상
조회사는 (주)매일상조 한 곳 뿐입
니다. 이 외에 '가톨릭'이라는 상
호를 사용하는 장례업체는 교구
와 무관합니다.

성모발현성지순례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출발일: 2016년 8월 29일 (13박 14일)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 일 레(유스티노)
홍 미 희(안젤라)

천연염색공방 풀라빛

·의류 ·침구류 ·소품

·염색원단 ·감물 ·혼수품

색의 연구가 이 명 숙 (루실라)

Mobile : 010-9350-4922

경북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730번지

이 원 의 료 기

협업계 ·혈당계 ·혈체어 ·산소치료기

뜸 ·부항기 ·주열기 ·찜질기

체온계 ·욕창매트 ·환자용품 ·안마기

실버카 ·보호대 ·글루코사민 ·오메가3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 2513

우리아이 아플때? 한영한마음 아동병원

손찬락(라파엘) 병원장/의학박사

평 일 ·야간 9시 ~ 밤 11시

토·일·공휴일 ·야간 9시 ~ 밤 9시

대구광역시 북구 대명동 22-1 (신성동 1-1) 2층

☎(053)255-3134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당)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대한민국 한복명장 이명자 한복방

한복의 모든 것, 명장의 손으로

T. (053)421-2827~8

HP. 010-3826-2827

이명자(세실리아), 강윤정(아네스)

성누가종합내과외과 (구.성누가의원)

위 ·대장내시경

건강검진센터(공단검진, 5대암)

원장 이만식(루카) · 원장 서영익(미카엘)

2호선 경대병원역 1번 출구 앞 2층

☎ (053)255-3134